

“혼자사는 며느리에 미안”
70대 노부부 동반자살
 광주=김권 기자] 지난 30일 오후 2시께 전남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 894 양수복(79)씨 집 안방에서 양씨와 양씨의 부인 김미임

(77)씨가 극약을 먹고 숨져 있는 것을 옆집에 사는 조소례(8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양씨부부가 “어려운 가정형편에 혼자 사는 며느리에게 신세지고 사는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둔 점과 극약을 담았던 봉지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생활고를 비관,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東 亞 日

90.10.11



노인68% 가족 함께사는것이좋다

갤럽 千명의식조사

우리가정의 핵가족화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혼자 살면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나 친구관계에서도 의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3명에 1명꼴 “친한 친구 없다”

지난81년에 이어 지난해 1월 60세이상 1천2백명(남자 47.6%, 여자 52.4%)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 조사를 결과, 배우자와 함께 사는다는 응답은 53.4%

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해 1월 60세이상 1천2백명(남자 47.6%, 여자 52.4%)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 조사를 결과, 배우자와 함께 사는다는 응답은 53.4%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족의 의의상대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지난해 81년도(52.7%)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한 아들 54.7%, 딸 41.8%, 며느리 또는 사위 52.7%, 37.5%, 손자 58.0%, 47.0%와 함께 산다는 비율은 모두 10%포인트 이상의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혼자 산

게 준 반면, 「자주 만나 식사하거나 이야기하는 정도가 좋다는 의견(5.7%→20.5%)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좋다는 의견(4.2%→9.8%)은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를 짐작수용해가는 것으로 분석

적됐다.

또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27.6%→38.3%)이 크게 늘어 핵가족화와 함께 친구관계에서도 의로움을 느끼는 노인이 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한국노인과 일본(1천1백34명) 태국(1천1명) 미국(1천7명) 덴마크(1천48명) 이탈리아(1

천10명) 등 5개국 노인들과의 의식구조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식, 손자 등 온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한국 68.2%, 태국 65.9%, 일본 58.0%, 미국의 국가들에서는 「자식 손자와 만나서 식사하거나 이야기하는 정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덴마크 74.5%, 미국 65.0%, 이탈리아 55.0%.

또 친연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높게 나타났다. 그에 유로 한국에서는 「돈이 필요해서」가 가장 높고(63.2%) 일본에서는 「건강에 좋아서」(18.4%)를 가장 위선(11.1%)의 순이었다. 일본에서는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아서(42.0%)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돈이 필요해서」(38.9%)였다.